

보 도 자 료

※ 11.23(화) 14:00부터 보도가능

한국금융연구원 · 자본시장연구원 · 보험연구원

제목 : 「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」 개최 (1) - 첫째 날

1. 개요

- 한국개발연구원, 한국금융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「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」가 11.23~24일 양일간 개최됨.

◆ 제1차 토론회 (11.23일(화) ; 은행연합회 앞 YWCA 대강당)		
(14:00~14:05)	인 사 말 씀	김태준 금융연구원장
(14:05~14:15)	축 사	진동수 금융위원장
session 1 (14:15~14:40)	2011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	김현욱 박사(KDI)
session 2 (14:40~15:20)	주택금융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	장민 박사(금융연구원)
session 3 (15:20~15:50)	서민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	이건호 교수(KDI)
session 4 (15:50~16:15)	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	이순호 박사(금융연구원)
(16:30~17:50)	종 합 토 론	•사회 : 김동원교수(고려대) •토론 : 1)함준호교수(연세대), 2)허석균박사(KDI) 3)박창균교수(중앙대), 4)이인호교수(서울대) 5)정은보국장(금융위)
◆ 제2차 토론회 (11.24일(수) ; 금투협회 3층 볼스홀)		
(14:00~14:05)	인 사 말 씀	김형태 자본연구원장
(14:05~14:15)	축 사	권혁세 금융위부위원장
session 1 (14:15~14:45)	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	윤창현 교수(서울시립대)
session 2 (14:45~15:15)	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	안철경 박사(보험연구원)
session 3 (15:15~15:45)	Private Equity 산업 발전방안	김재철 박사(자본연구원)
session 4 (15:45~16:15)	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	이인형 박사(자본연구원)
(16:30~17:50)	종 합 토 론	•사회 : 김필규박사(자본연구원) •토론 : 1)강임호교수(한양대), 2)신인석교수(중앙대) 3)정세창교수(홍익대), 4)엄경식박사(시립대) 5)조인강국장(금융위)

2. 추진배경 및 의의

- 지난 11.11~12일 이틀동안 개최된 **G20 서울정상회의**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.
 -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,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였음.
 - 특히, 지난 네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은행권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, SIFI규제 신설 등 여러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을 최종 확정·완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앞으로 G20 서울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, 한국의 금융당국은 G20의 각종 합의사항들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향후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.
 - 뿐만 아니라,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,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선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.
- 이에 민간 연구기관들은 지난 2월 발표했던 「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」의 연장선속에서, 금융부문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을 금융당국에 제안하는 자리로서 이번 「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」를 마련하게 되었음.
 - 이틀동안 이어지는 「릴레이 토론회」에서 생산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,
 -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내년도 금융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.

3. 첫날 발표 주요내용

① 내년도 거시경제전망 및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- 김현욱(KDI)

< 주요 내용 >

- 2011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4.2%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민간소비는 소득과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정상화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4.1% 증가율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
 - 설비투자는 수요확대 지속 등을 배경으로 8.5%의 견실한 증가율을,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3.4% 증가율 전망
 - 경상수지는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에 따라 수입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넘어서면서,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152억달러 흑자(2010년 320억달러 흑자) 전망
- 이러한 경제여건하에 우리 경제는 몇가지 금융부문 리스크요인을 내포
 - 단기·변동금리·일시상환방식 위주의 주택금융시장 특성에 기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주택금융구조
 - 기업부문의 **GDP 대비 차입금 비율**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확대
 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**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**하고 있으며,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**PF대출 부실**이 전 금융권에서 **현재화될 우려** 상존
 -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국내여건과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기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자본유입 가속화 가능성

< 정책적 시사점 >

-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성 등 확보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
- 주택금융시장 구조개선노력 지속, 부실기업 구조조정 강화, PF대출 부실에 대한 선제적 감독,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금융부문의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

② 주택금융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- 장민(한국금융연구원)

< 주요 내용 >

- 외환위기 이후 가계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, 산업측면에서는 건설업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 제기
 - 특히, 주택경기호황에 기반한 부동산관련 대출 확대 과정에서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도 심화
- 우선,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실물경제 대비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급증을 견인
 - * 명목 GDP 대비 총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1년말 15.1%에서 2009년말 36.3%로 확대
 - 대출구조적 측면에서도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,
 -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주택경기 침체 지속 등 외부충격시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상존
 - 또한,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공공부문의 서민대출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한편, 민간부문 대출수요를 구축할 가능성

□ 한편,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**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 우려 제기**

- 은행, 증권, 보험 등의 경우 대손충당금,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,
 -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비중(19.1%) 및 브릿지론(65.9%) 비중 등을 감안할 때 **향후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**
- 이와 같은 PF대출의 부실화의 배경에는 **현행 PF대출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**이 잠재
 - 금융회사는 면밀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기 보다는 건설사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관행
 - 시행사는 대부분 자본구조가 열악한 영세회사로 시행능력이 취약한 반면, 시공사는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시 부실화 위험에 노출

< 정책적 시사점① : 주택수요 측면의 주택금융 발전방안 >

□ 그동안 급증한 주담대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

* 해외위기사례를 볼 때,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0% 내외에서 유지될 필요

□ 차주에게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행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

-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장기·고정금리·분할상환대출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변동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금리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
-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장기·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유인 및 은행권 공급 여건을 마련
 - * 차주에게 대출유형별 소득공제 차등화 등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편,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조성

□ 주택금융공사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접적 자금공급보다는 모기지채권의 매입 및 유동화, 주택연금 공급 등 시장 보완적 지원 분야에 특화

< 정책적 시사점② : 주택공급 측면의 주택금융 발전방안 >

- 그동안 부동산 경기 호황이나 시공사 보증 등에 의지하여 무분별하게 확대된 **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**
 - 기존 대출의 경우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가운데,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이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리
 - * 현재 지자체, 공사 등이 추진중인 공모형 PF의 사업성도 전면 재검토
 - 신규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 및 저축은행 등 취약부분의 구조조정도 지속
 - **현행 PF대출의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검토**
 - * (예) 사업자금의 일정부분(예 : 20%)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(현재 저축은행권에 적용(10.10월) 중이며, 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)

③ 서민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- 이견호(KDI)

< 주요 내용 >

- 현행 서민금융 시스템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위축,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, 정책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문제점 내포
 - **(공급위축)** 상호금융, 저축은행 등은 주고객층이 저신용·영세사업자로 신용리스크가 높아 신용대출 비중이 매우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
 - **(고금리)** 지속적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수취,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지속
 - **(정책금융)** 서민금융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가능성, 정부 보증·저금리 융자 중심 지원 방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서민금융시장 이원화, 전액보증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등

☐ 서민금융 역할 재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민금융정책의 기본원칙을 재확립할 필요

- ① 금융지원과 무상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금융도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 전제로 공급
- ② 저금리 방식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하여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
- ③ 은행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
- ④ 서민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성화를 위해 손실분담원칙 적용
- ⑤ 리스크 유형·크기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·특성 차등화

< 정책적 시사점 >

- ☐ 손실부담원칙의 확립, 미소금융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선 추진
- 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기관 네트워킹 및 지원체제 강화,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서민금융 인프라 강화
- ☐ 소비자금융업 도입, 대부업체의 자율규제체제 강화 등을 통한 대부업 영업행태 건전화 도모

④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- 이순호(금융연구원)

< 주요 내용 >

- ☐ 현재 국내 신용정보 관리·활용업무는 크게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)과 민간 **CB**가 함께 담당
 -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제공기관간 협의(신용정보협의회)에 따라 안정적으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으나, 업권별 대표성 및 공공성 측면이 다소 미흡
 - CB의 경우, 자체 신용평가 모형 및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, 신용평가기준 및 신용등급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도 확보가 필요

< 정책적 시사점 >

- 은행연합회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수행 관련, 공적기능의 위탁수행자로서 정체성 확립,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 노력 필요
 - 민간 **CB**와의 균형있는 공존을 위한 역할과 기능 정립, 종합집중기관 업무의 투명성 개선, 소비자에 대한 신용관리 교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추진
- **CB**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관련, 신용평가 모형 및 활용변수 등의 사전적 규제를 지양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
 - 신용정보 보호 강화와 병행하여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, 수요자 감시 및 금융당국의 사후감독을 적절히 조화하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

4. 둘째 날 계획

- 11.23일(화) 「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」 첫째 날에는 「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금융부문 리스크요인」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음.
- 이어 11.24일(수) 둘째 날에는 여의도 금투협회 세미나실에서,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진단과 발전방안(윤창현 교수),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(안철경 박사), PE 산업 발전방안(김재철 박사), 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(이인형 박사)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임.

※ 「릴레이 토론회」 관련 문의사항 :

-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박사(3705-6364)
-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박사(3771-0631)